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2년 12월 생산은 전월대비 1.6% 감소(전년동월대비 0.8% 감소)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1.6%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었으나, 광공업과 건설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어 0.8% 감소함.
-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1차금속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5% 감소함(전년동월대비 8.0%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등에서 늘었으나,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2022년 12월 소비는 전월대비 1.4%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7.1%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2.7%)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11.1%), 화장품 등 비내구재(0.1%)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2.5%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8%)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4.8%)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7.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9.5%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3.0%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p	2021				2022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4/4p	12월	11월p	12월p
생산	전산업	-1.1	4.9	3.3	1.7	0.6	0.9	1.5	1.3	0.9	0.4	-2.1	1.3	0.4(1.2)	-1.6(-0.8)
	광공업	-0.3	7.4	1.4	3.7	-0.6	1.0	1.1	3.8	-1.6	-1.5	-5.7	3.4	0.6(-3.4)	-2.9(-7.3)
	제조업	-0.2	7.6	1.3	3.9	-0.7	0.9	1.3	3.9	-1.7	-1.8	-5.7	3.5	0.8(-3.3)	-3.5(-8.0)
	건설업	-2.1	-6.7	2.5	-5.2	-1.9	-1.1	4.1	-1.9	1.4	0.4	5.1	6.0	2.7(12.1)	-9.5(-3.1)
	서비스업	-2.0	4.4	4.8	0.6	1.7	1.1	1.5	0.0	2.8	1.5	-0.8	-0.4	-0.3(3.1)	-0.2(3.7)
소비	소비재 판매	-0.2	5.9	0.2	1.7	2.2	0.8	1.1	-1.1	-1.1	1.2	-0.8	2.2	-1.7(-2.1)	1.4(-2.5)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0	0.7	-0.8	-0.2	0.2	-1.2	9.8	-0.1	2.1	0.7(10.7)	-7.1(3.2)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6	0.2(5.0)	0.8(5.2)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1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2년 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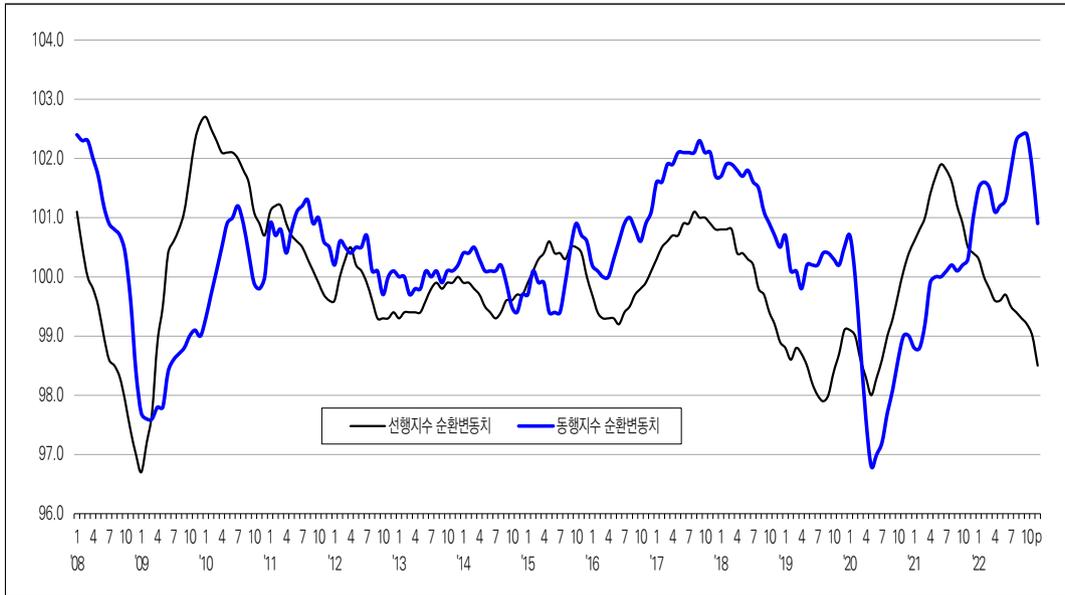
◆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8%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1.0% 상승)

- 2023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0(2020=100)로 전월대비 0.8% 상승함(전년동월대비 5.2%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7%), 주택·수도·전기·연료(1.1%), 기타 상품·서비스(1.8%), 보건(1.1%), 음식·숙박(0.5%), 가정용품·가사서비스(1.2%), 오락·문화(0.7%), 교육(0.4%), 의류·신발(0.3%)은 상승, 통신은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0.1%), 교통(-0.9%)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1.3%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8% 상승하여 전월대비 1.0% 상승함.

◆ 2022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6%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감소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9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15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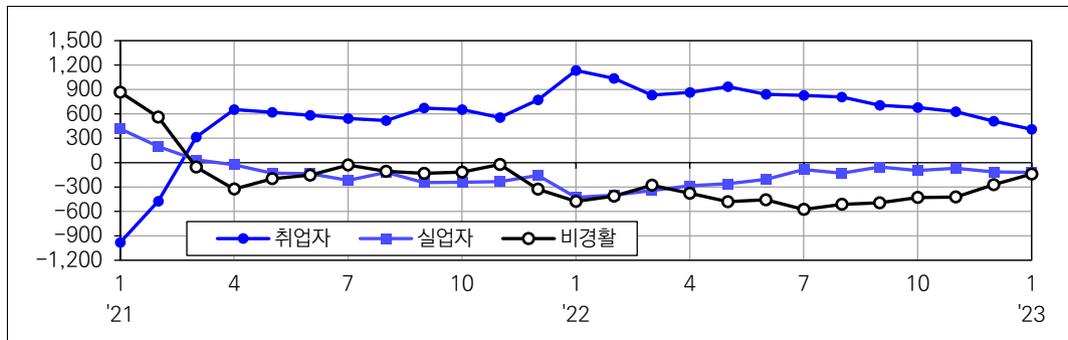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

○ 2023년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1만 1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2만 7천 명 감소).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1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업은 감소폭이 확대됨. 서비스업은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금융보험에서는 증가 전환됨. 교육서비스는 전년동월 수준을 기록하였고 보건복지는 증가폭이 확대됨.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1월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20대는 주로 제조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30대는 제조업에서 감소 전환됨. 60세 이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농림어업 및 음식숙박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종사상 지위별) 1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근로자는 상용직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에서는 감소폭이 확대됨.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 전환됨.
- (일시휴직자) 1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축소(12월 7만 3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10만 2천 명 감소함.
- (실업자) 1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소폭 확대(12월 -11만 3천 명)됨. 전월대비로는 4만 6천 명 감소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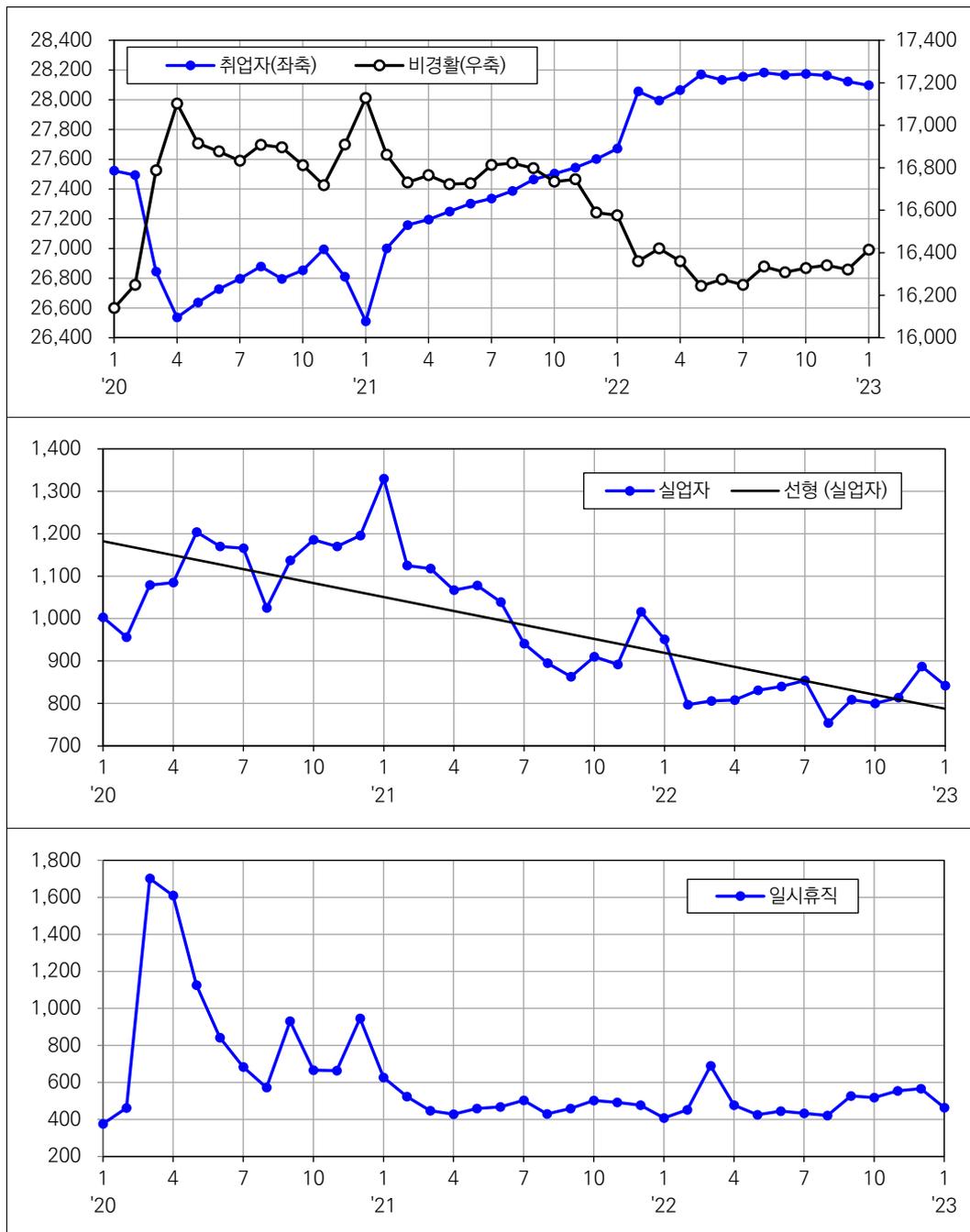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1월 취업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는 제조업 및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에서 감소로 전환됨. 30대는 제조업 및 전문과학기술에서 감소로 전환되고 건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60세 이상은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 음식숙박, 사업관리지원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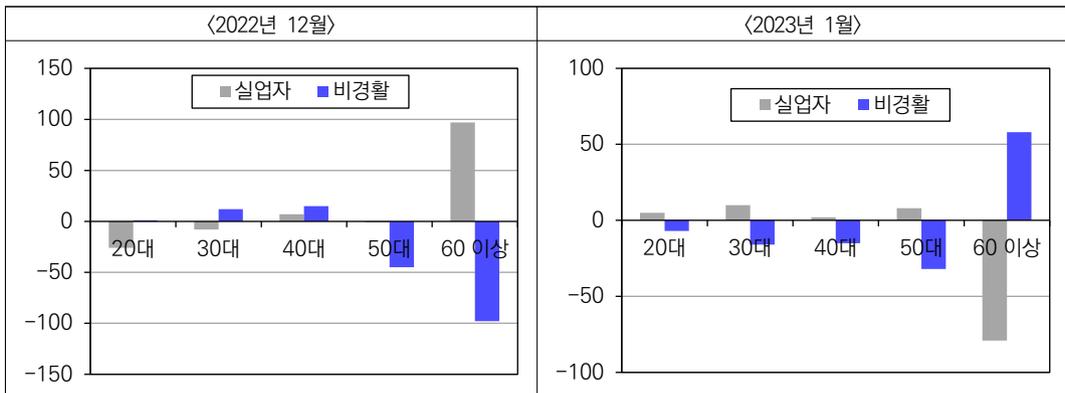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취업자	-1	-4	-8	(6)	-4	-21	-43	(-2)	66	42	17	(-13)
실업자	-7	-3	-6	(1)	17	-21	0	(5)	-20	-19	0	(10)
비경활	-32	-27	9	(12)	-184	-135	-142	(-7)	-156	-129	-123	(-16)
실업률	-4.2	-1.6	-2.0	(0.1)	0.4	-0.5	0.1	(0.1)	-0.3	-0.3	0.0	(0.2)
고용률	0.1	-0.1	-0.3	(0.2)	1.5	1.3	1.0	(0.0)	2.2	1.8	1.5	(0.0)
	40대				50대				60세 이상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취업자	-6	-57	-63	(-4)	92	110	107	(24)	479	440	400	(63)
실업자	-18	-5	-9	(2)	-27	-22	-15	(8)	-13	-44	-91	(-79)
비경활	-70	-38	-28	(-15)	-45	-75	-75	(-32)	65	133	221	(58)
실업률	-0.2	0.0	-0.1	(0.0)	-0.5	-0.4	-0.3	(0.1)	-0.3	-1.2	-2.0	(-1.3)
고용률	0.9	0.2	0.2	(0.1)	0.9	1.2	1.1	(0.3)	1.8	1.7	1.5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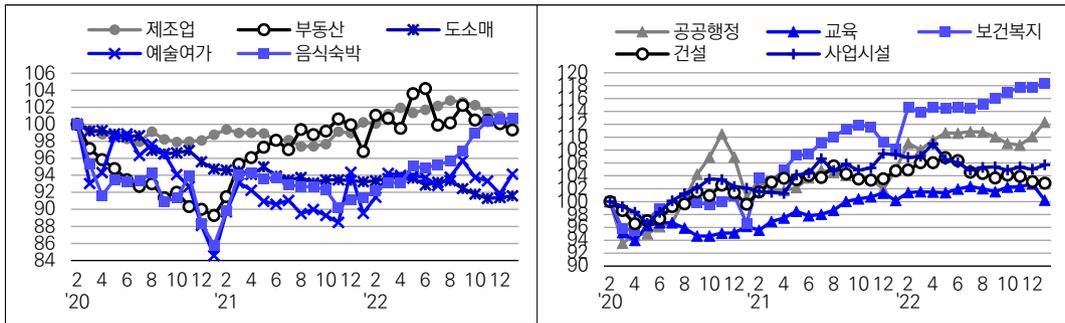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동산, 교육 및 건설이 감소함. 반면 음식숙박 및 도소매는 정체됨. 예술여가, 공공행정, 보건복지 및 사업시설은 증가함.
-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 및 예술여가는 2020년 2월 수준 이하를 기록함.

[그림 4]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59	-14	-47	15	-7	30	38	2.5
광업	-4	-5	-6	0	-1	1	0	1.5
제조업	101	86	-35	-38	-20	-67	-125	-2.8
전기·가스·증기	6	9	8	-1	2	1	2	2.3
수도·원료재생	-27	-28	-31	-3	3	-5	-5	-3.7
건설업	11	-12	-39	-4	-16	-5	-26	-1.2
도매 및 소매업	-78	-73	-61	-18	4	7	-7	-0.2
운수 및 창고업	-12	-14	-51	-14	-4	-33	-51	-3.1
숙박 및 음식점업	231	216	214	32	5	4	40	1.8
정보통신업	52	50	72	6	-12	31	25	2.5
금융 및 보험업	-27	-20	16	-8	8	29	29	3.8
부동산업	-1	1	14	0	-2	-4	-6	-1.2
전문·과학·기술	41	45	30	11	20	-9	22	1.7
사업시설관리지원	2	-32	-21	7	-5	9	11	0.8
공공행정·사회보장	59	84	71	-3	15	25	36	3.0
교육서비스업	30	26	1	2	7	-47	-38	-2.0
보건 및 사회복지	149	184	220	19	-1	15	33	1.2
예술·스포츠·여가	26	-13	23	-2	-8	12	2	0.4
협회·단체·수리·기타	11	14	16	20	-4	-8	8	0.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5	3	10	1	6	3	10	12.3
국제 및 외국기관	3	4	4	0	0	1	1	6.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3년 1월은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되고 임시직은 감소폭이 확대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 전환됨.
 -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운수창고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제조업 및 건설업에서 감소 전환된 반면 보건복지에서는 감소폭이 축소됨.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운수창고, 음식숙박 및 부동산에서 감소 전환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678	636	575	17	34	41	92	0.6
임시직	-83	-23	-52	-8	-43	-125	-176	-3.8
일용직	-84	-76	-70	-2	-12	-31	-44	-4.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7	26	54	-10	21	18	29	2.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29	27	-25	35	-60	-42	-67	-1.5
무급가족종사자	-41	-81	-72	14	-31	-11	-29	-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농림어업	3	5	3	-14	-18	-18	-6	-6	-11	-16	-10	-14	90	29	10
제조업	132	102	10	17	10	-7	-27	-23	-24	5	11	13	-19	-2	-11
건설업	59	63	64	-3	5	-26	-44	-68	-62	2	-1	-6	10	5	-2
도소매	35	15	16	-31	-22	-46	-7	2	9	-7	-6	-9	-27	-24	-9
운수창고	-27	-21	-33	-22	-19	-19	6	11	5	7	4	8	24	10	-13
음식숙박	120	121	112	68	73	77	3	9	9	20	8	28	2	5	-6
정보통신	56	55	65	-6	-10	-5	-7	-4	-2	1	-2	0	7	9	14
금융보험	-24	-14	3	-18	-16	-1	3	0	-1	4	4	6	7	6	9
부동산	-16	-20	-1	9	15	13	0	-1	1	4	1	5	2	5	-3
전문과학기술	32	30	18	-14	-5	-9	4	4	4	6	9	11	15	8	8
사업관리지원	-9	-36	-27	4	-4	-10	-5	-9	-1	4	8	15	8	9	6
공공행정	98	88	64	-38	-2	9	-2	-2	-3	-	-	-	-	-	-
교육서비스	35	23	25	-20	-8	-20	1	10	1	-4	3	-6	20	3	10
보건복지	175	209	219	-31	-26	0	3	0	-3	-1	-4	0	4	6	5
예술스포츠	-12	-8	7	21	4	11	0	1	11	8	9	11	9	-20	-19
협회단체	39	39	45	1	-4	-1	-2	1	-6	-3	-4	-4	-27	-22	-23
가구 내 고용	-3	-3	1	-1	8	5	-4	-2	4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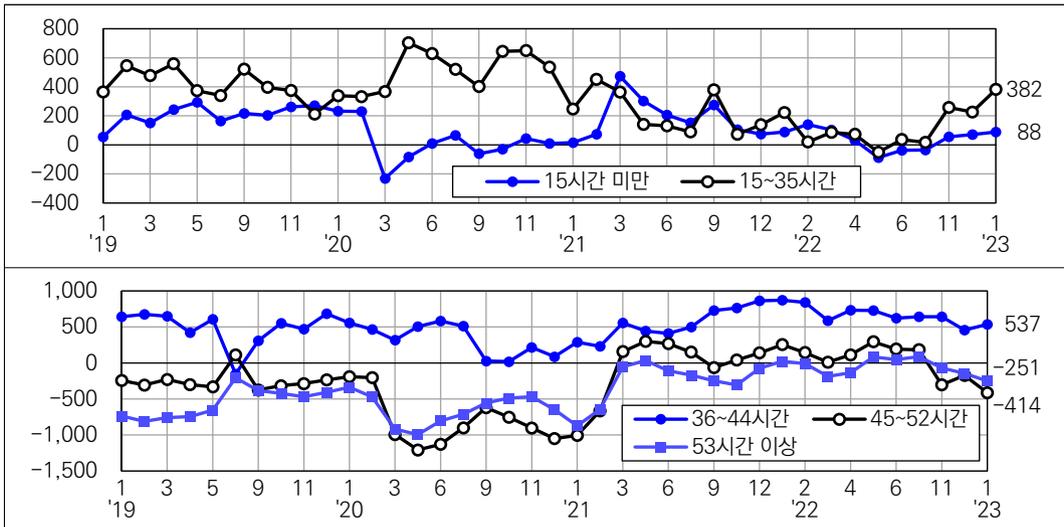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1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8.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함.

－ 이는 45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고 44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영향임.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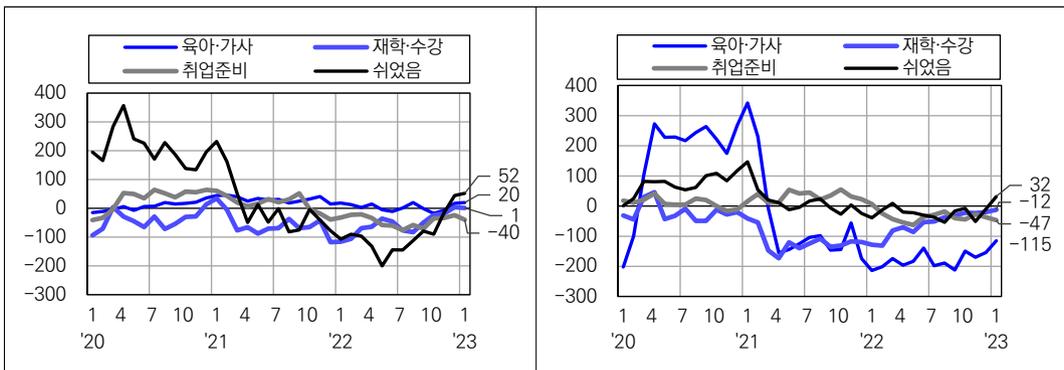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3만 9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12월 -27만 1천 명)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7만 9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그 외 연로·심신장애 사유에서 증가 전환됨. 여성은 -21만 8천 명으로 쉬었음에서 증가 전환됨.

[그림 6]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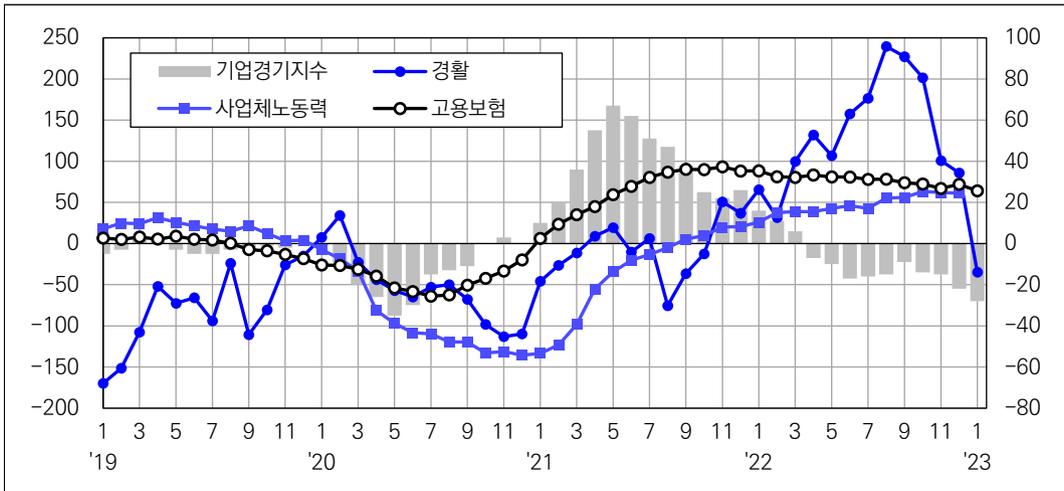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전환 및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23년 1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3만 5천 명 감소하여 감소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폭이 축소되는 추세가 이어짐. 피보험자는 주로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화학제품, 전자·통신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6만 7천 명 감소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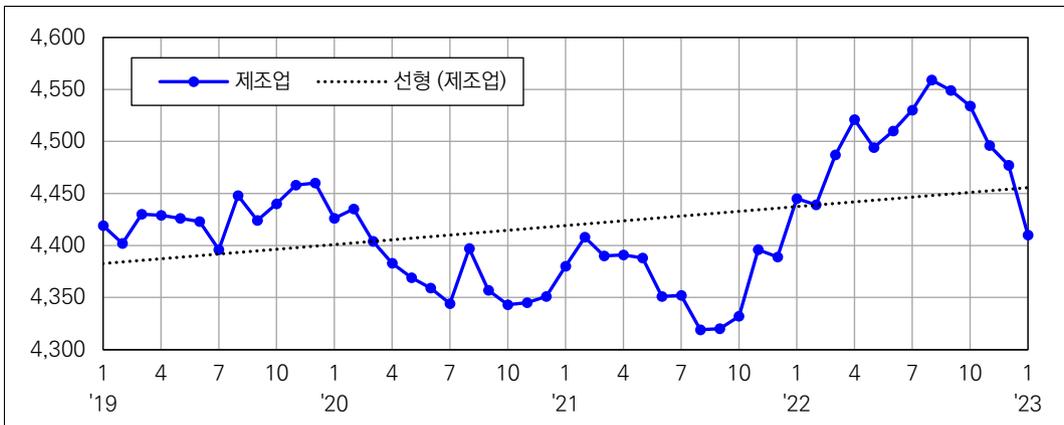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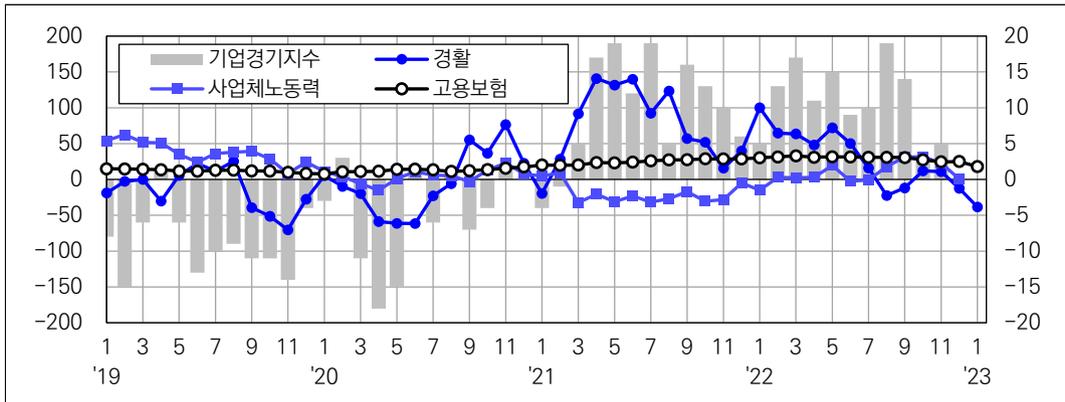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3년 1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만 9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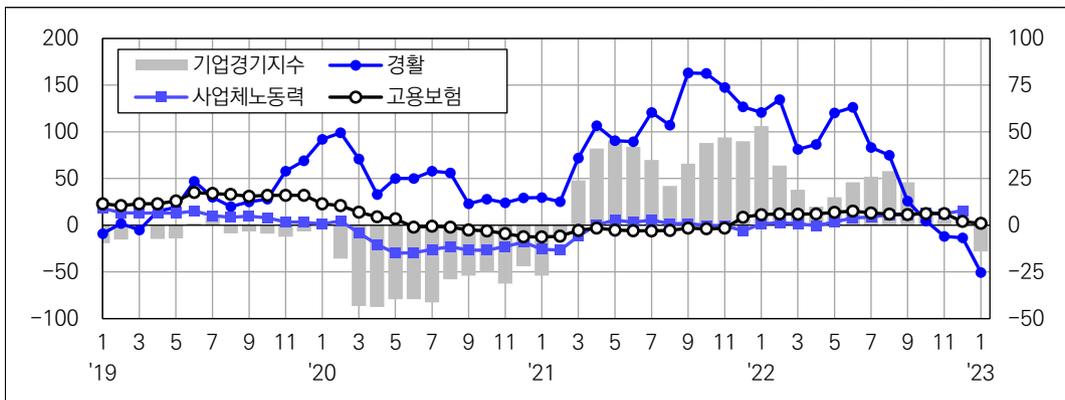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3년 1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52만 8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됨. 기업경기지수는 감소 전환됨.
 - (금융보험) 경찰 취업자는 12개월의 감소 이후 1월 증가로 전환됨.
 - (교육서비스) 경찰 취업자 및 사업체조사 종사자 수는 전년동월 수준을 기록함.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그 외 고용 지표도 증가폭을 유지함.

[그림 10]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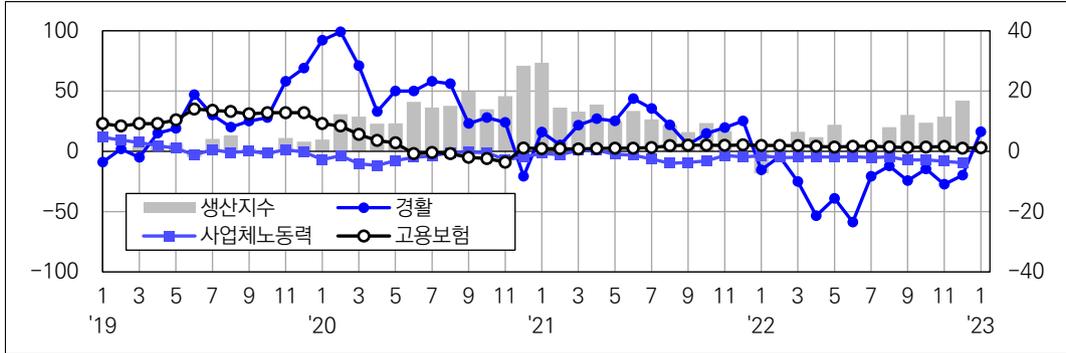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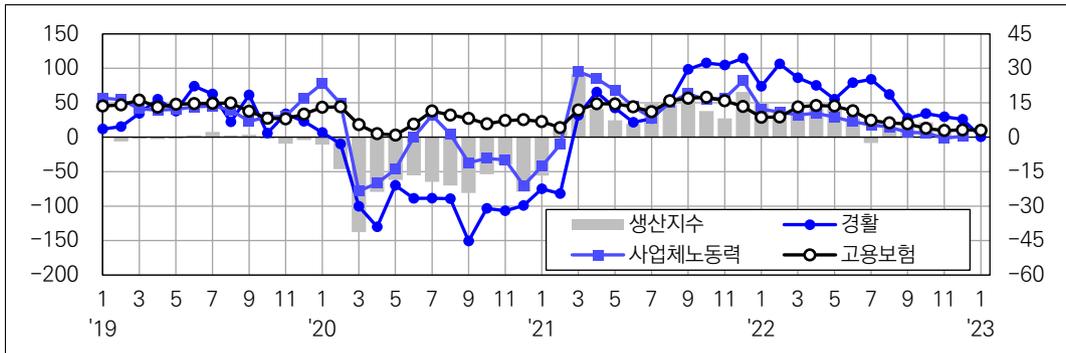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교육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학원)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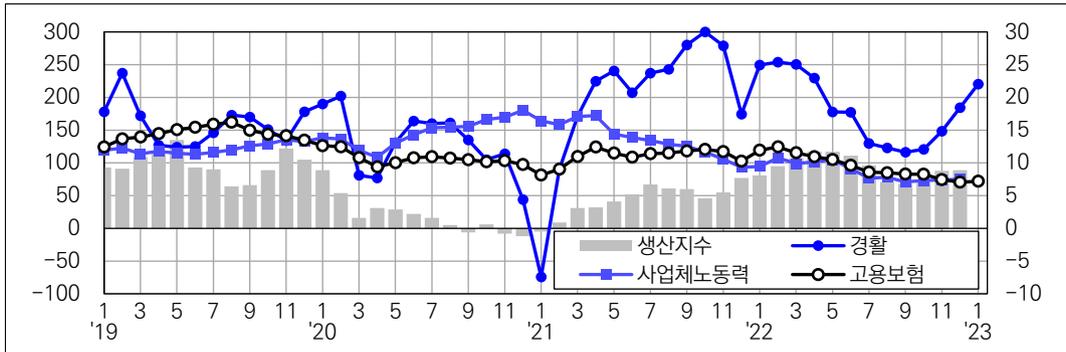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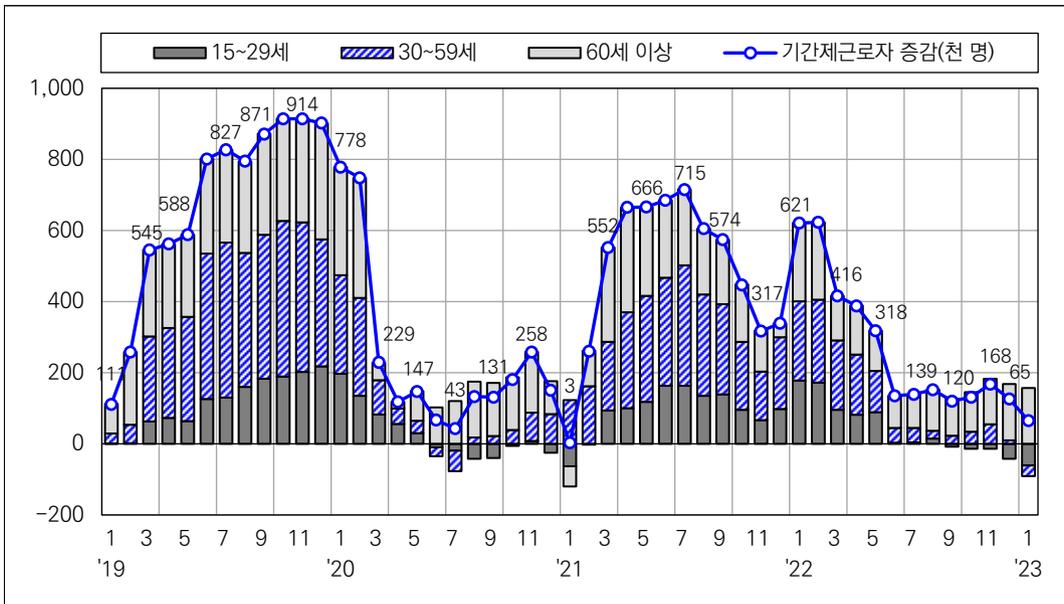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 2023년 1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만 5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기간제는 연령별로 15~29세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30~59세에서는 감소로 전환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중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2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

- 2022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8만 5천 원(4.5%)임.
 - － 2022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78만 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은 176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함.
 - －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정액급여(4.5%)와 특별급여(8.0%)의 증가 영향이 크게 작용함.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증가율은 운수 및 창고업(6.5%)이 가장 컸으며, 도매 및 소매업(5.9%), 제조업(5.1%), 숙박 및 음식점업(5.0%), 건설업(5.0%) 순으로 평균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시일용근로자의 특별급여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2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큰 폭의 소비자물가상승률(5.0%)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
 - － 1~11월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거의 동일한 수준임.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8	2019	2020	2021	2021		2022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376 (5.3)	3,490 (3.4)	3,527 (1.1)	3,689 (4.6)	3,632 (4.3)	3,430 (4.0)	3,818 (5.1)	3,585 (4.5)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592 (5.1)	3,702 (3.1)	3,719 (0.4)	3,893 (4.7)	3,831 (4.4)	3,612 (3.9)	3,785 (4.8)
	정액급여	2,891 (4.6)	3,010 (4.1)	3,077 (2.2)	3,181 (3.4)	3,164 (3.3)	3,172 (3.7)	3,300 (4.3)
	초과급여	197 (3.7)	202 (2.7)	200 (-0.9)	208 (3.7)	208 (4.0)	211 (1.0)	219 (5.7)
	특별급여	504 (8.5)	490 (-2.8)	441 (-9.9)	504 (14.3)	459 (12.3)	229 (10.2)	518 (12.8)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428 (5.5)	1,517 (6.2)	1,636 (7.8)	1,700 (3.9)	1,695 (4.0)	1,714 (3.1)	1,742 (2.8)	1,764 (2.9)
소비자물가지수	104.5 (1.5)	105.1 (0.4)	105.7 (0.5)	104.0 (2.5)	103.9 (2.4)	103.9 (3.8)	109.1 (5.1)	109.1 (5.0)
실질임금증가율	3.7	3.0	0.5	2.0	1.8	0.2	0.0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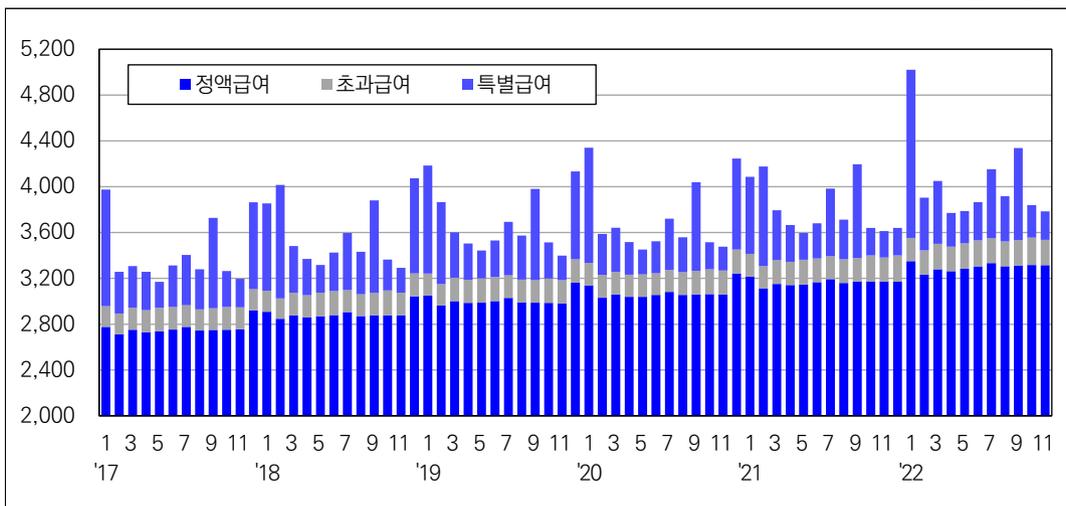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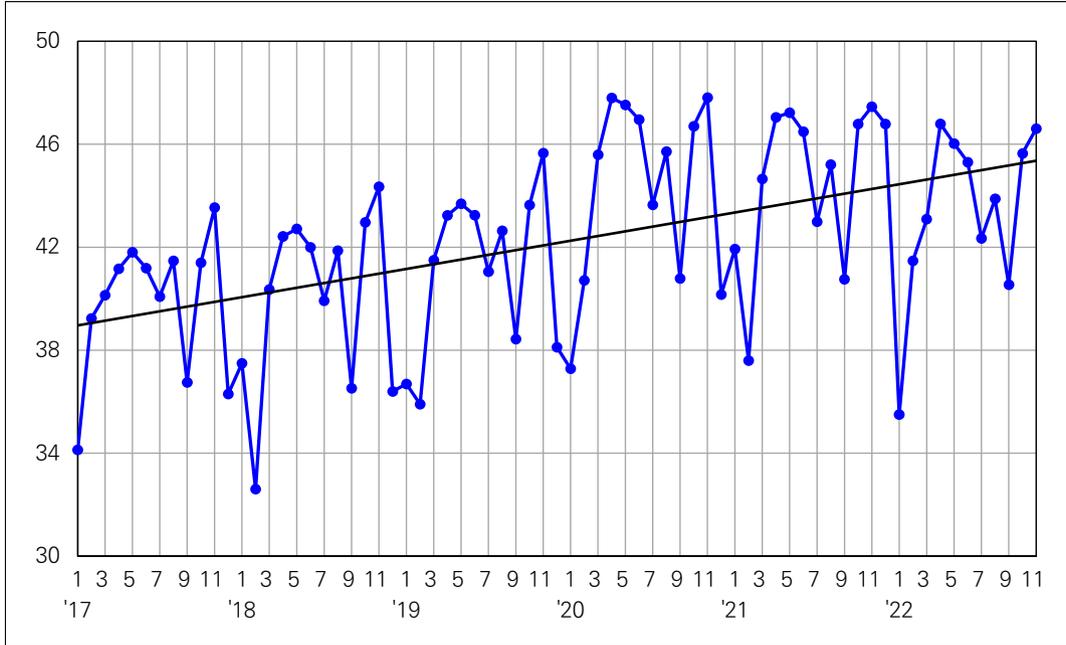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평균임금이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크게 확대

- 2022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1%, 5.6% 증가함.
 - － 중소기업(1~299인)·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4%, 5.8% 증가함.
 -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1~11월 평균 중소·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각각 4.3%, 7.3%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 － 전반적으로 제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이며, 특히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폭 확대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등의 영향 때문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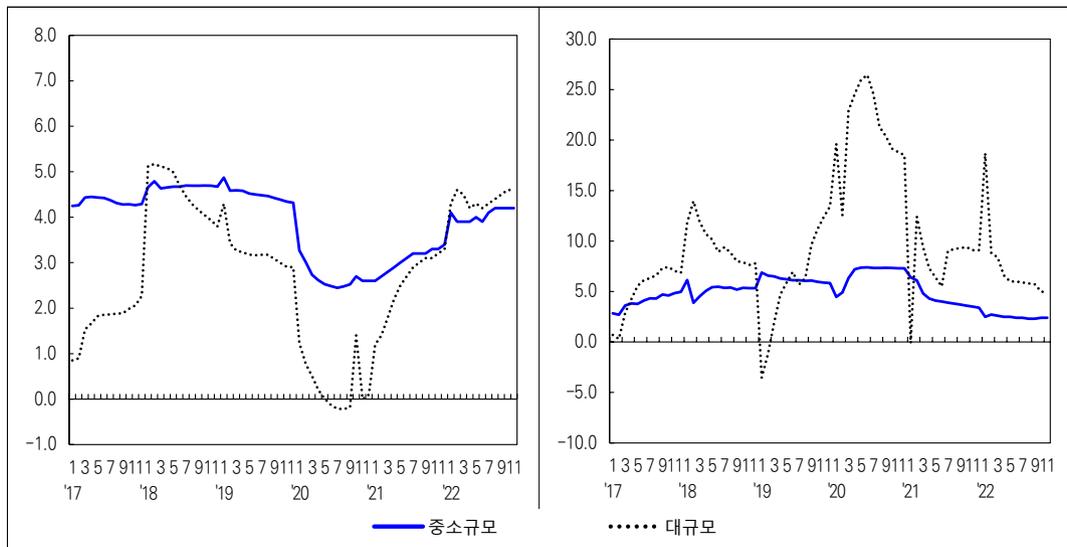
		2020		2021		2021		2022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소 계	3,193 (1.7)	3,316 (3.8)	3,277 (3.7)	3,167 (4.0)	3,419 (4.3)	3,296 (4.1)		
	상용임금총액	3,377 (1.2)	3,510 (3.9)	3,467 (3.8)	3,346 (3.9)	3,627 (4.6)	3,492 (4.4)		
	정액급여	2,915 (2.6)	3,012 (3.4)	2,999 (3.3)	3,013 (3.6)	3,125 (4.2)	3,141 (4.3)		
	초과급여	171 (-2.4)	176 (2.9)	175 (3.3)	178 (-0.1)	185 (5.7)	187 (4.7)		
	특별급여	292 (-9.4)	322 (10.4)	292 (9.7)	155 (14.6)	316 (8.2)	164 (5.7)		
	임시일용임금총액	1,615 (7.3)	1,671 (3.4)	1,666 (3.5)	1,694 (2.8)	1,707 (2.4)	1,741 (2.8)		
대규모	소 계	5,242 (-2.1)	5,582 (6.5)	5,433 (5.6)	4,763 (3.8)	5,828 (7.3)	5,031 (5.6)		
	상용임금총액	5,335 (-2.8)	5,687 (6.6)	5,533 (5.7)	4,855 (3.9)	5,951 (7.6)	5,137 (5.8)		
	정액급여	3,847 (0.1)	3,973 (3.3)	3,935 (3.2)	3,919 (3.8)	4,117 (4.6)	4,121 (5.2)		
	초과급여	340 (1.4)	357 (5.1)	358 (5.4)	362 (3.4)	378 (5.5)	384 (5.9)		
	특별급여	1,149 (-12.5)	1,357 (18.1)	1,240 (14.5)	574 (4.8)	1,457 (17.5)	632 (10.0)		
	임시일용임금총액	2,029 (18.5)	2,214 (9.1)	2,198 (9.1)	2,045 (5.6)	2,306 (4.9)	2,126 (4.0)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전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2년 11월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9.6%)이었으며,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7.1%), 제조업(5.2%), 정보통신업(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1%)이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임.
- 2022년 11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15만 4천 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8만 8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1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남.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7만 7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0	2021	2021		2022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3,527	3,689 (4.6)	3,632 (4.3)	3,430 (4.0)	3,818 (5.1)	3,585 (4.5)
광업	4,325	4,415 (2.1)	4,401 (2.1)	4,328(-0.2)	4,579(4.0)	4,529(4.6)
제조업	3,990	4,239 (6.2)	4,145 (5.6)	3,823(3.9)	4,415 (6.5)	4,020(5.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33	6,753(0.3)	6,557(1.0)	5,329(3.5)	6,691(2.0)	5,388(1.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888	4,094(5.3)	3,984(4.9)	3,913(5.3)	4,063(2.0)	4,003(2.3)
건설업	3,032	3,106(2.4)	3,086(2.2)	3,069(4.9)	3,212(4.1)	3,181(3.6)
도매 및 소매업	3,423	3,551(3.7)	3,503(3.7)	3,362(3.9)	3,713(6.0)	3,601(7.1)
운수 및 창고업	3,530	3,795(7.5)	3,688(6.1)	3,390(4.2)	3,926(6.4)	3,716(9.6)
숙박 및 음식점업	1,879	1,905(1.4)	1,895(0.8)	1,918(2.8)	1,998(5.4)	1,977(3.1)
정보통신업	4,613	4,796(4.0)	4,749(3.7)	4,487(3.6)	4,935(3.9)	4,714(5.1)
금융 및 보험업	6,526	6,963(6.7)	6,816(6.9)	5,902(5.2)	7,147(4.9)	6,154(4.3)
부동산업	2,848	2,954(3.7)	2,923(3.5)	2,839(5.9)	3,062(4.7)	2,925(3.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871	5,106(4.8)	4,979(4.4)	4,681(5.7)	5,266(5.8)	4,811(2.8)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11	2,492(3.4)	2,473(3.3)	2,425(2.6)	2,563(3.6)	2,523(4.1)
교육서비스업	3,366	3,355(-0.3)	3,359(-0.3)	3,097(0.3)	3,436(2.3)	3,187(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942	3,014(2.5)	3,000(2.4)	2,934(2.0)	3,109(3.7)	3,033(3.4)
여가 관련 서비스업	2,873	2,994(4.2)	2,958(4.3)	2,816(3.7)	3,038(2.7)	2,918(3.6)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563	2,700(5.4)	2,683(5.4)	2,595(5.0)	2,814(4.9)	2,710(4.4)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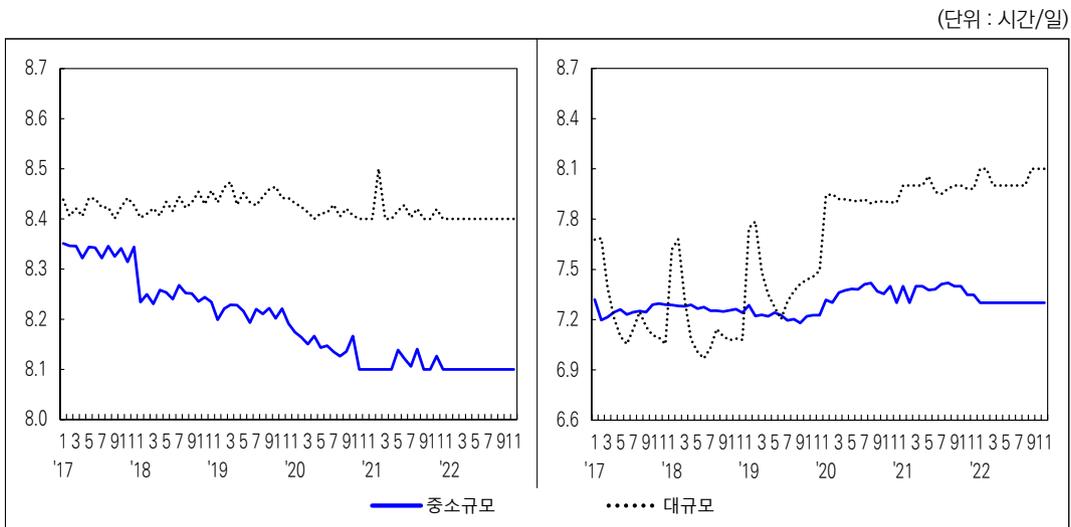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7.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동일)

- 2022년 11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5.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9.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1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에서 근로시간 감소와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임시일용근로자의 증가 영향으로 보임.
- 중소기업의 11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167.3시간으로 0.9시간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는 170.9시간으로 0.6시간 증가하였음.
- 2022년 1~11월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0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6시간 감소함.
 - 2022년 1~11월 누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동평균대비 1일 감소한 데 기인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1(-1.8)	160.3(0.1)	159.2(-0.2)	168.2(3.7)	157.6(-1.0)	167.3(-0.5)
	상용 총근로시간	167.6(-2.1)	167.8(0.1)	166.6(-0.2)	176.6(3.6)	165.0(-1.0)	176.1(-0.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9.8(-1.7)	160.1(0.2)	158.8(-0.3)	169.0(4.1)	157.3(-0.9)	168.6(-0.2)
	상용 초과근로시간	7.8(-9.3)	7.7(-1.3)	7.7(0.0)	7.6(-6.2)	7.7(0.0)	7.6(0.0)
	임시일용 근로시간	96.1(0.7)	97.4(1.4)	97.0(1.3)	99.4(2.3)	96.3(-0.7)	97.3(-2.1)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8(-0.8)	162.3(-0.3)	161.4(-0.6)	170.3(2.7)	159.8(-1.0)	170.9(0.4)
	상용 총근로시간	163.9(-1.4)	163.4(-0.3)	162.5(-0.6)	171.6(2.6)	161.0(-0.9)	172.4(0.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3.0(-1.2)	152.3(-0.5)	151.3(-0.8)	160.7(2.9)	149.9(-0.9)	161.5(0.5)
	상용 초과근로시간	10.9(-4.4)	11.1(1.8)	11.1(1.8)	10.9(-1.8)	11.1(0.0)	10.9(0.0)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2(19.4)	127.9(2.2)	127.7(2.2)	131.6(4.9)	124.9(-2.2)	129.4(-1.7)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2년 11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한 가운데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업과 운수창고업 등 일부 산업은 증가

- 2022년 1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83.0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제조업(182.8시간), 광업(182.6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9.0시간)이었음.
- 2022년 1~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근로일수의 감소로 운수창고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0	2021	2021		2022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160.6	160.7(0.1)	159.6(-0.3)	168.6(3.6)	158.0(-1.0)	167.9(-0.4)
광업	181.2	179.9(-0.7)	178.8(-0.7)	185.4(-0.7)	174.1(-2.6)	182.6(-1.5)
제조업	172.7	173.5(0.5)	172.4(0.3)	183.1(2.9)	170.2(-1.3)	182.8(-0.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3.7	161.6(-1.3)	160.9(-1.3)	165.7(-0.6)	157.9(-1.9)	168.0(1.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5	176.9(0.2)	175.5(-0.2)	184.8(3.8)	173.6(-1.1)	183.0(-1.0)
건설업	136.9	135.9(-0.7)	135.0(-1.2)	141.7(3.8)	133.9(-0.8)	139.0(-1.9)
도매 및 소매업	163.8	163.8(0.0)	162.7(-0.3)	171.2(3.6)	161.6(-0.7)	171.7(0.3)
운수 및 창고업	159.0	160.2(0.8)	159.3(0.4)	167.1(4.2)	159.8(0.3)	169.0(1.1)
숙박 및 음식점업	149.7	148.4(-0.9)	147.6(-1.5)	154.7(2.5)	146.1(-1.0)	151.7(-1.9)
정보통신업	163.8	164.1(0.2)	162.9(-0.2)	173.7(4.4)	162.0(-0.6)	173.9(0.1)
금융 및 보험업	162.1	161.9(-0.1)	160.6(-0.6)	170.3(4.8)	159.0(-1.0)	171.3(0.6)
부동산업	173.2	171.8(-0.8)	170.8(-1.0)	177.7(2.4)	168.6(-1.3)	176.6(-0.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7	161.6(-0.1)	160.4(-0.6)	171.4(5.0)	159.6(-0.5)	172.0(0.4)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1.7	162.1(0.2)	161.0(-0.1)	168.6(3.6)	159.0(-1.2)	167.9(-0.4)
교육서비스업	136.6	137.2(0.4)	136.2(0.0)	145.5(3.8)	135.4(-0.6)	145.3(-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158.3(-0.2)	157.1(-0.5)	166.3(3.5)	154.6(-1.6)	164.1(-1.3)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9.7	152.7(2.0)	151.9(1.3)	158.8(4.6)	150.3(-1.1)	157.4(-0.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62.4(1.3)	161.2(1.0)	169.0(4.8)	159.4(-1.1)	168.5(-0.3)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3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15건
 - －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1건)보다 4건 많은 수치임.
- 2023년 1월 조정성립률 66.7%
 - － 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62.5%보다 4.2% 높은 수치임.

〈표 1〉 2022년, 2023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3. 1	15	7	2	1	1	1	0	1	1	3	7	66.7%
2022. 1	11	9	5	2	3	3	1	2	0	1	2	62.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3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4건
 - － 1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2건)보다 2건 많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3건임.

〈표 2〉 2022년, 2023년 1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3. 1	4	3	3	0	0	1
2022. 1	2	0	0	0	0	2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3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583건
 - 1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601건)보다 18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0.8%(3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79.2%(118건)를 차지함.

〈표 3〉 2022년, 2023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1	583	149	25	6	80	8	16	14	434
2022. 1	601	159	40	6	86	4	15	8	44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3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12건
 - 1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9건)보다 7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50.0%(2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0.0%(2건)를 차지함.

〈표 4〉 2022년, 2023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3. 1	12	4	2	0	2	0	0	0	8
2022. 1	19	8	4	0	4	0	0	0	1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 2월 2일 고용노동부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임.

◆ 금속노조, 삼성전자·삼성SDI 노동자 성과급 영향 분석 보고서 발표

- 2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삼성 고과 제도의 현황과 폐해 실태 연구: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 설문조사 대상은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아이(SDI) 노동자 445명이며, 생산직(34.4%)과 사무·연구개발직(62.5%), 노동조합원(47.4%)과 비조합원(52.6%) 등이 고르게 분포해 있음.
-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삼성의 임금체계를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70.4%)하며, '같은 직급이라도 급여 차이가 큰'(85.6%) 제도로 인식했음.
- '평가 공정성'에선 '현재의 고과(성과) 평가는 신뢰할 만하다'는 문항에 75.1%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성과 평가는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된다'는 문항에 부정적인 응답은 65.3%였음.
- 면접조사에선 평가 권한을 쥐 중간 관리자들이 '지역감정' '술자리 참석 여부' '자신의 여가인 농사짓기에 도움' '만만한 사람' 등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을 활용한다고 언급했음.

◆ 최근 5년간 하수·폐기물 처리하다 146명 사망

- 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산재보험 소업종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에 대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수·폐기물 처리업종에서 146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재해자는 6,306명으로 사고재해 5,432명(86.1%), 질병재해 874명(13.9%)으로 나타났음. 사고재해와 질병재해 모두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음.
- 전체 사망자는 146명으로 사고사망 94명(64.4%), 질병사망 52명(35.6%)이었음.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2년 11월 펴낸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에서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을 고위험 5개 업종 중 하나로 분류했음.
- 이 안전가이드북의 2017~2021년의 사고사망에 대한 조사 분석을 보면 사고사망자는 79명임, 제일 많은 사망 유형은 떨어짐(22명)이며, 그다음으로 부딪힘(19명), 끼임(13명), 물체에 맞음(5명), 산소결핍(5명)의 순이었음.

〈표 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의 산업재해 현황

	재해자계	사고재해	질병재해	사망자계	사고사망	질병사망
2018	1,188	1,051	137	32	24	8
2019	1,341	1,151	190	32	20	12
2020	1,329	1,149	180	22	16	6
2021	1,417	1,206	211	33	19	14
2022. 9	1,031	875	156	27	15	12
합 계	6,306	5,432	874	146	94	52

자료 : 용혜인 의원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 사고사망자 전년보다 39명 줄어

- 1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산재 사망사고는 611건으로 644명이 숨졌음.
- 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39명, 사고 건수는 54건 감소했음.
- 사고 건수가 줄어든 것에 비해 사망자 수 감소가 적은 이유는 2명 이상 사망한 대형사고가 늘었기 때문임.
- 2022년 화재·폭발·무너짐 등 대형사고는 모두 13건으로 2021년보다 5건 늘었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수(39명)가 77.3% 증가했음.
- 대형사고는 주로 300명 이상 대기업에 집중됐음. 300명 이상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모두 47명으로 2021년에 비해 30.6%(11명) 늘었음. 이 가운데 화재·폭발 사고 사망자가 29.8%(14명)의 비중을 차지함.
- 대기업의 대형 중대재해 증가는 50명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난 직접적인 배경임. 2022년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23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256명이 목숨을 잃었음. 2021년 대비 사망자는 8명(3.2%) 늘었지만 사고 건수는 4건(1.7%) 줄었음.

〈표 6〉 사업체 규모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망자 수 현황

(단위 : 명, %)

		전 업종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사망자 수	2021년	683	435	248
	2022년	644	388	256
	증감	-39	-47	8
	증감률	(-5.7)	(-10.8)	(3.2)

자료 : 고용노동부.

◆ 매출액 낮은 건설업체일수록 ‘산재사망 많아’

- 1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원 미만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는 226명으로, 120억 원 이상 건설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 87명의 2.59배였음.
- 매출액 120억 원 이상 건설업체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망자는 82명, 원청노동자는 5명이었고, 50억~120억 원 미만 건설업체는 하청노동자 사망 18명, 원청노동자는 10명이었음.
- 매출액 1억~50억 원 미만에서는 하청과 원청노동자 사망자가 각각 65명과 80명이었고, 1억 원 미만 업체의 경우 각각 16명과 65명이었음.

〈표 7〉 건설업 원·하청 사망자 수 현황

	매출액	하청 사망자 수	원청 사망자 수	전체 사망자 수
건설업	1억 원 미만	16(19.7%)	65(80.2%)	81
	1억~50억 원 미만	65(44.8%)	80(55.1%)	145
	50억~120억 원 미만	18(64.2%)	10(35.2%)	28
	120억 원 이상	82(94.2%)	5(5.7%)	87

자료 : 이수진 의원실.

◆ 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 야근’

- 1월 29일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응답자 32%가 “아니다”고 답했음.
- 실제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34.7%가 수당 지급 방법으로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음.
- “관행상 미지급”(29.4%), “한도액을 설정”(19.4%), “교통비·식비지원 같은 실경비만 지급”(12.5%)이 뒤를 이었음.
- 포괄임금제로 정해 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을 많이 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 됐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69.4%가 “아니다”고 답했음.
-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음.
-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 문제가 여전한 상황임. 이에 응답자 10명 중 7명(70.9%)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음.

◆ 한국의 '국가 성평등지수' 75.4점

- 1월 26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면서 2021년 한국의 '국가 성평등지수'가 전년도보다 0.5점 오른 75.4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여성의 사회참여나 사회적 의사결정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낮았음. 영역별로 보면 '여성의 인권·복지'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음.
-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이 74.9점, '사회참여 영역'이 69.7점 순이었음. 분야별로 '보건'이 9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이 94.5점으로 뒤를 이었음.
- 성평등지수란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 영역과 경제활동·복지·가족 등 8개 분야에서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